

2017 년 3 월 19 일 “찾아오신 예수님(24) 및 한 알의 영광”(요 12:20-33)

<도입>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1]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

20 절. 이방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구약으로부터 흐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유대인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사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사 49:6 “...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헬라인들의 방문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방인을 위한 국면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왔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며 난감해 하십니다. 십자가의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난감해 하신 이유는 육체적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 밭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빗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25 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현실의 세속적 조건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거나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삶의 승리를 위해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행합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한 내면의 열정과 힘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위해 지금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위나 공로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면 자신도 우쭐하고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정과 칭찬이 2 순위 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힘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현실적 조건과 동일시(identify)합니다.

24 절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 눅 9:23)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 막 8:35)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25)

밀알이 썩어 죽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전 삶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과 차원의 세계로 이끕니다. 이 세계로 들어오면 세상적 가치가 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의 생명, 친밀한 관계, 미래에 대한 소망, 삶의 질의 측면에서 선명하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계로 진입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나의 상태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가’에 우선순위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얼마나 문제 해결이 잘 될까, 등... 물론 인생을 살며 너무나 힘들 때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지는 것에 주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유업(내게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축복)의 세계는 나아진만큼만 누리게 됩니다.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못수저에서 은수저로 바뀌는 정도만큼의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아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3] 그러나 반전의 삶은,

내 인생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밀 한 알의 가치임을 깨닫고 그것이 썩도록 자신의 삶이라는 밭에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 하나가 묻혀진 내 삶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내 삶을 소중하게 돌보는 길은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말씀을 내 삶에 흡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자아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당신의 삶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길 위에서 당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완벽하게 밀착되고 일치하신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맺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밀 한 알의 죽음을 기꺼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와 같은 삶의 축복이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오늘 한 알의 밀에 대한 본문과 교안을 읽고 느낀 바를 말씀해 보세요.
2.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중에 나는 어떤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생존 자원을 구하고 취할 때, 직장에서 업무 실적을 내고 보고할 때 등,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3.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측면으로 살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생각하거나 경험한 바를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에 대해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당신의 언어로 말씀해 보십시오.
4. 자기 비판과 성찰에서만 그치지 말고, 서로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밀 한 알의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